

먼저 불교문화의 정수精髓를 접하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마련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우리나라 국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유교로서 채우기 부족했던 내세와 마음의 안녕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었기에 결코 힘이 쇠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1700여 년간 법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왕을 비롯한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또,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염원과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력이 현재 우리 불교를 만든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원發願, 간절한 바람을 담다>라는 전시는 불교문화의 중심에 있던 후원자들의 역할과 염원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미술에서 후원자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렇기에 종교미술 속에는 후원자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후원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현세의 원망, 내세에의 지향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경전, 조각, 공예, 회화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미술을 통해 나타나는 후원자들 여러 면면을 살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찬찬히 돌아보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조계종단, 불교중앙박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시와 학술·연구 등에서 꾸준한 성과를 함께 거두어 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훌륭한 전시를 마련하신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관장과 학예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시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발원의 공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